

대~한민국은 인쇄종주국

초등 국어교과서 고인쇄박물관 등 자세히 소개

청 주고인쇄박물관이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돼 인쇄를 통한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한교과서에서 인쇄해 지난 2학기부터 사용되고 있는 5학년 국어 교과서 둘째 마당에 청주고인쇄박물관 인터넷사이트를 빌려서 고인쇄박물관은 물론 직지와 옛 선조들의 인쇄과정을 자세히 안내했다.

이번 교과서에 수록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개는 총 14페이지를 할애해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와 신라시대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인쇄공정 등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컴퓨터 코너에는 금속활자 만드는 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 인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해를 한층 높였다.

특히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읽은 후 과제를 제출함으로써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코너를 넘어 인쇄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숙지 수준까지 요구했다.

60페이지에서 시작된 과정은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61페이지부터는 간단한 박물관안내가 나온다.

'직지와 흥덕사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직지'에 대해 자

세히 나와있다. 교과서는 '직지'가 1377년 석찬과 달잠스님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임을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직지가 프랑스공사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에 건너갔고, 1911년 골동품 수집가 베베르에게, 그리고

1950년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었으며, 2001년 9월4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직지 금속활자 공방 재현관'에는 금속활자를 만드는 밀랍 주조법이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인쇄문화실'에 대한 소개도 빠지지 않았는데 신라시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물론 고려시대의 팔만대장경, 조선시대 월인천강지곡활자판을 열거했다. '동서양 인쇄문화비교실'과 '현대의 인쇄문화 구역'도 나열했다.

'동양의 인쇄문화 구역' 코너에서는 종이에 대한 소개를

금속 활자가 나왔
인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책을 볼 수 있겠

금속 활자를 이용하
면 짧은 시간에 책을
많이 찍을 수 있거든.

속 활자를 발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



금속 활자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종합 예술품으로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과학 문화재이다.

어떻게 해서?

천 참 신기하군.

자랑스러운 우리 조상의 슬기
우리 조상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하였다. 또, 금속 활자와 더불어 책을 찍을 수 있는 인쇄 잉크와 한지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과학·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며, 학문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조상들의 이러한 슬기를 이어 받아 우리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들의 과학·기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조사

잊지 않았으며, 고구려 승려 담징이 백제를 거쳐 일본에 건너가 채색 방법과 종이, 먹 제조 방법을 전해 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울러 '서양문화구역'에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영인본'에 대한 소개를 했다. '현대 인쇄문화구역'에 전시된 활판 인쇄기, 사진 식자기, 청타기, 플라톤 인쇄기 등 인쇄와 관련된 각종 도구를 서술



했으며, '미래문화구역'에서는 전자책을 소개하면서 미래의 인쇄가 화상, 음성 영역까지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선 최고 활자 '직지'를 통해 초등학교생들에게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찍어낸 조상들의 창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문화 민족의 긍지를 지켜 나가야겠죠" 라고 서술하면서 초등학교생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박물관 소개이후 이어진 과제 부분 또한 눈 여겨 볼만 한 데 교과서는 과제물로 '직지의 발견 경위', '고려 시대의 인쇄문화', '미래의 인쇄 문화', '인쇄문화를 소개하는 여타의 박물관'에 대해 묻고 있다. 이번 교과서는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7~10년까지 쓰이게 돼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www.jikjiworld.net)의 초등학교생과 학부모들의 방문이 성시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인쇄에 대한 초등학교생들의 이해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주고인쇄박물관 홈페이지는 지난 7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권장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